

제목: 전도자의 사역

마태복음 10:9-20 절

9.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Do not acquire gold, or silver, or copper for your money belts,**

10.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군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or a bag for your journey, or even two coats, or sandals, or a staff; for the worker is worthy of his support.**

11.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And whatever city or village you enter, inquire who is worthy in it, and stay at his house until you leave that city**

12.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As you enter the house, give it your greeting.**

13.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If the house is worthy, give it your blessing of peace. But if it is not worthy, take back your blessing of peace**

14.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Whoever does not receive you, nor heed your words, as you go out of that house or that city, shake the dust off your feet.**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Truly I say to you, it will be more tolerable for the land of Sodom and Gomorrah in the day of judgment than for that city.**

16.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Behold, I send you out as sheep in the midst of wolves; so be shrewd as serpents and innocent as doves**

17.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But beware of men, for they will hand you over to the courts and scourge you in their synagogues;**

18.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and you will even be brought before governors and kings for My sake, as a testimony to them and to the Gentiles**

19.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 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But when they hand you over, do not worry about how or what you are to say; for it will be given you in that hour what you are to say**

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For it is not you who speak, but it is the Spirit of your Father who speaks in you.**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 명을 불러 제자로 불러 주셨습니다(**누가복음 6:12 절**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 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불러 주신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목적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 받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권능** 즉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그 능력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 권능 중에 일 부분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1 절**)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명으로 불러 주신(**1 절** “제자를 부르사”) 후에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5 절**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5 절과 6 절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복음에도 무작정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 장 31 절**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따르는 표적이 있는데 **8 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 장 16 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경고를 **8 절**에서 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명령입니다.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표적이 이르게 되는데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인하여 ‘수고비’ 내지는 ‘사례비’라는 것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사역자들에게는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물질이 움직이면 사단과 마귀가 이용하기 쉽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역자라고 하는 목사와 선교사들도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역자에 전도사를 넣어서는 안됩니다. 전도사는 평신도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본문에 말씀하시는 소명자 즉 사역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임명하신 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안수를 한 사역자들을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것을 그 다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9 절과 10 절**에서 “전도를 위하여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전도를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군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 좋은 사역자의 예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부와 세상적인 명예를 얻을 수 있었는데도 광야에서 살면서 한 벌 옷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인 음식으로 살며 오직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그 때 그 부르심이 지금은 다를까요? 성경의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마지막 시대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역자들 즉 목사님이나 선교사들도 이 방법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역자로 주님의 권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떠나면 세상적인 싸움, 투쟁, 미움, 이권, 즉 부와 명예로 얼룩질 것입니다. 이런 사역자를 샅군 목자라고 **요한복음 10 장 12 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샅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헤치느니라”). 그러므로 사역자는 반드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방법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역자들이 “일군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례비를 챙기는데 당연히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의 기본적인 활동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전도할 곳을 찾아 지역을 선택할 때 **13 절**에 “합당한 자”를 먼저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해야 할 일은 **12 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즉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주님께서 전도자 때문에 그 집을 축복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주최는 예수님이시고 사역자는 오직 주인의 종 즉 당연히 해야 하는 소명자라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주인과 종이 뒤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인 목사가 주인이 되고 주인이신 예수님은 목사를 위하여 일하는 종으로 부리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자가 선택한 곳이 합당하면 그곳을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며 반대로 사역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하는 복음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며 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18 절**에서도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14-15 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본문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의 멸망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라고 하신 그 성은 바로 **마태복음 25 장 41 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하신 그 영영한 불이 있는 지옥을 직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지옥은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 볼 수 없었던 무서운 곳입니다.

본문에서 “그 곳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 버리라”라는 의미는 그곳에서 받은 모든 것을 다 놓고 또는 돌려주고 나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은 다 썩어질 무익한 것이라는 이분법 즉 하나님의 복음 아니면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무서운 결단이 복음의 진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사역은 생명 즉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심 주제입니다.

15 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 사역이 사역자에게는 매우 위험스러운 환경이라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이 슈퍼마켓이나 골목 상점처럼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전쟁터와 같은 의미로 표현하는 것은 진정으로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는 교회를 다시 세우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은 복음의 전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로마서 15:20 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으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 장 37 절**에 “사람들이 주님을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복음이 없거나 필요한 곳에 전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 사역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자들 즉 소명자들이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을 다음 말씀에 강조해 주셨습니다.

16 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뱀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또는 넓은 대로로 다니지 않습니다. 좁고 험잡하고 낮은 곳으로 또는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요란하지 않고 은밀하게 하듯이 복음은 우리 전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지혜롭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수리나 맛있는 새처럼 자랑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이라도 정결하고 순결하게 먹을 것을 찾는 비둘기처럼 사역자의 겸소한 삶 속에서 거룩한 모습을 갖고 오직 성경을 전하는 사역자의 삶 또는 생활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7 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모임처럼 즉 ‘협회’, ‘동아리’, ‘정당’과 같은 당을 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 장 19 절**에서도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고 하였고, **로마서 2:8 절**에서도 “예수님께서서는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하셨습니다. 소명을 받은 사역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조직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모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타락도 사람들의 조직 때문에 본질인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사람 중심이 되는 모임이 되고 세상적인 힘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단체가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 즉 소명자들은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전도사역 외에는 모임을 만들거나 조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변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복음의 본질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17 절**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님의 진실한 복음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중에 일어난 일이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19 절** “염려하지 말라”). 그 때 우리 사역자에게 변호사와 같은 보혜사가 있어 무슨 말을 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을 당하는 복음 전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성령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주님께서 소명으로 부르신 전도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19-20 절** “너희를 넘겨줄 대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그럼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전도자의 사역을 위하여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9-10 절**)

1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9 절**)- **디모데전서 6:10 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 **누가복음 16:14 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 **히브리서 13:5 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2 세상적인 것으로 준비하지 말라(**10 절**)- **요한 1 서 2:15 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3.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14 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둘째, 전도자의 사역은 세상과 어울리지 말고 오직 보내신 자 **예수님의 복음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18 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 세상적인 것으로 복음을 대신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 서 4:5 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2. 세상적인 것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 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16 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삽나이다”- **요한 1 서 5:4 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3.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14 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셋째, 전도자의 사역은 복음 사역을 위하여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20 절**)

1. 복음 사역을 위하여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 1 서 5:7 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2. 성령을 받으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13 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3.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4:1 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